



세계화와 한국경제: 호황인가, 거품인가

具本湖 (연구자문위원, 한양대 교수)

최근 우리는 「세계화」란 말을 매일처럼 접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를 충칭하고 있는 말인 것 같다. 본고에서는 먼저 세계화가 뜻하는 변화의 내용을 간단히 조감해 본 다음 우리 경제현실을 조명해 봄으로써 우리가 함께 변화해 가야 할 중요한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세계화

경제학에서 아직도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명확하고 합의된 定義는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과학·기술의 혁신, 특히 교통·통신·정보산업에 있어서의 기술혁신과 정부의 규제완화(deregulation)로 인해 경제적 거리가 점점 좁아짐에 따라, 종래의 국경이 경제적으로 점점 무의미해져 간다는 것이다. 그 결과, 첫째, 세계금융시장은 이미 선진국간에는 하나의 시장으로 統合되고 또 동조화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갈 것이다. 또 산업조직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80年代 이래 국제적 직접투자의 신장률이 상품 무역의 증가세를 능가하여 다국적기업에 의한 경제적 활동이 급진전되고 있으며,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생산은 말할 것도 없이 마케팅, 연구개발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네트워크(network)化 되고 있다. 심지어는 소유에 있어서도 국제적

M&A(統合 및 合併)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국적기업들이 국제적으로 동일한 규칙에 준하여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립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고, 또 연쇄적 기술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형태의 기업간 제휴가 현저히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경제는 현재 현상적으로 아주 화려하게 보이나 다가올 변화를 생각하면 우려와 걱정을 금할 수 없다.

우리 경제의 현황

금년 1/4분기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성장률 9.9%라는 고속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고속성장이 상품수출의 급신장(24.4%)과 왕성한 설비투자의 증가(25.2%)에 의해 先導되고 있으므로 現行 경제적 호황은 그 구성에 있어서도 건전하다고 정부는 자랑하고 있다.

피부로 느끼는 경제에 있어서도 우리 주변 도처에서 구직난보다는 구인난을 겪고 있어 실업률은 사상 최저수준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득증가와 원貨의 對美貨환율도 매일처럼 계속 내려가고 있어 해외여행을 위한 항공예약이 힘들 정도라고 듣고 있다.

또 필자의 최근 경험으로도 세계 어느 나라의 호텔이나 백화점, 식당을 둘러보아도 한국처럼 흥청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단군 이래의 최대 호황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렇듯 화려한 우리 경제가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에서 관찰해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영화는 지나가는 소낙비속에 솟아오른 무지개 같은 一過性的인 영화가 아닌가 하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필자가 최근 한 학기간 미국의 대학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바를 간단히 소개해 보면 첫째, 구매력 차원에서 국내 상품가격이 미국에 비해 싼 것이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은 고사하더라도 의류, 자동차, 전자제품 등 거의 모든 제품가격이 우리나라에 비해 반 이하이다. 둘째, 생산요소가격을 비교해 보면 제조업이나 서비스분야의 근로자임금은 약간 높거나 거의 우리나라 수준과 비슷한데 金利는 우리의 절반 수준이다. 셋째, 생산요소가격에서의 우위가 없다 하더라도 기술 및 경영조직에서 생산성이 높다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 및 경영·조직면에서 우리가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점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넷째, 물적·인적 사회간접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교통체증으로 인해 物流費用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질서를 지키려는 시민의 마음가짐도 추악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수가 왕성하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은 한마디로 많은 산업부문에서 국내시장이 아직도 높은 보호의 벽에 안주하고 있으며, 또 對外的으로는 국내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이윤에 힘입어 한계비용가격 또는 그 이하에서 수출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분석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시장의 보호와 덤핑적 수출은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을 것임이 분명하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경제적 성공을 자랑했던 멕시코가 최근 추락하는 경제로 급변한 사실이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제일을 자랑했던 일본이 지금에 와서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꼭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대응 방향

世界化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과거 추진하였던 산업합리화정책이 대부분 결과적으로 산업비합리화정책이 되었던 경험을 상기하여 어떤 형태의 산업육성정책도 그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오히려 경쟁력 있는 기업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이나 퇴거가 자유롭도록 인·허가제의 철폐와 규제완화를 혁신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또 최근 일본경제의 어려움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일관성있고 꾸준한 개방화·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기업이나 국내시장의 과보호는 다가오는 세계화의 변화과정에서 어려움을 누적하게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적극적 기능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시장의 실패와 외부효과가 분명한 분야에서 정부는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핵심적 기반 기술의 획득을 위한 산업계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고 공동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하며 연구개발의 비용분담과 성과공유를 유도하는 기술개발지원체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훈련을 확산하고, 산업, 교육 및 연구기관의 시설과 정보가 공유되고 또 공동연구가 확산되도록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를 통해 국내외 다국적 기업의 고부가가치활동을 유인하는 입지조건을 구비토록 해야 한다.

한편, 우리 기업도 세계化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정부의 보호나 지원을 기대하는 기업은 조만간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급변하는 기술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순발력 있는 적응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업간의 제휴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우리 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일류기업과의 상호보완적 기능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내에 세계적 일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과학자, 경영자 등의 人的 자원을 구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物的 자원도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내 노사관계는 물론 기업간에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정립되어야만 생산, 판매, 연구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네트워크化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도 이제는 排他的이고 단기적인 금전적 이익을 추구해온 굶주린 시절의 惰性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계화란 세계시민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보다 잘난 국

민으로부터는 겸허한 마음으로 배워야 하며, 우리보다 뒤진 국민에게는 성실하게 우리의 경험을 나눌 줄 아는 열린 마음과 世界共同體의 市民意識을 함양해야 한다. 흔히 우리는 정부나 기업, 또 外國과 外國人을 탓한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은 없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엔화에 의한 일시적이고 일면적 호경기에 안주하지 말고, 현재 동시에 달러低에 대한 부담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世界化의 물결속에서 오늘의 경제적 호황이 거대했던 성수대교나 화려했던 삼풍백화점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긴박감으로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 깊이 省察해 보아야 한다.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문학사(1955)

미국 Minnesota 대학교 경제학 석사, 박사(1963)

미국 Wisconsin 대, Georgia 주립대 교수(1963~71)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장·부원장(1971~80)

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 소장(1980~81)

한양대학교 대학원 부원장·원장(1981~87)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1983~87)

대통령 교육정책자문회의 위원(1984~92)

한국개발연구원 원장(1987~92)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장(1982~현재)

통일원 통일정책평가위원(1990~현재)

한양대 교수, 금융대학원 원장(1992~현재)

세계경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1993~현재)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후원회원의 종류: 법인회원, 개인회원

—후원회원에 대한 주요 서비스:

- 연구원주관 행사에 우선 초청 및 참가비 할인
- 연구원 발간 각종 간행물 및 회의자료 제공
- 주요 행사의 비디오 및 녹음 테이프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법인회원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회원 가입 문의: 551-3334~7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전화: 551-3334/7

Fax: 551-3339